

화단 및 조경용 원추리 재배기술

Propagation and Cultivation of *Hemerocallis* Used for Bedding and Landscape Plant.



송 정 섭 농업연구원, 이학박사
(031-290-6203, songjs@rda.go.kr)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National Horticultural Research Institut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 과명 : 백합과(Liliaceae)
- ▶ 학명 : *Hemerocallis fulva* L.
- ▶ 일명 :ほんかんぞう
- ▶ 분류 : 다년초

원추리, 아직까지는 전국의 산야에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생화 중의 하나이다. 원추리는 영명으로는 꽃의 수명이 짧아 'Daylily', 또는 'Tawny Daylily' 라고 하며, 중국명으로는 흰초(萱草)라고 한다. 꽃이나 잎이 좋아 도로변, 공원 등지에 조경이나 화단용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나물이나 약용 또는 밀원식물로도 이용된다.

1. 종류 및 생리생태

원추리의 유사종으로 향기가 있고 꽃가루



가 흑갈색인 각시원추리, 잎 표면에 꿀이 있는 꿀잎원추리, 키가 크고 향기가 있는 큰원추리, 홍도가 원산인 홍도원추리, 꽃잎이 황록색인 노랑원추리, 전체적으로 약간 작은 애



(원추리로 꽃길조성이 잘 조성된 경우)

기원추리, 키가 크고 꽃도 큰 **왕원추리** 등 총 8종이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다. 원추리는 현재 전북농업기술원에서 품종을 육성 중에 있으며 곧 신품종을 선보일 예정이다.

원추리류는 추위에 강해 전국에서 월동이 가능하며 여름철 고온이나 음지에도 강하다. 종자의 발아는 종에 따라 차이가 많으며, 발아해도 개화까지 2~4년 정도가 소요된다. 자연조건에서 화아분화는 2월 하순경부터 시작되며 개화는 초여름부터 시작한다.

키는 자생지의 광선이나 토양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60~100cm 범위이며, 꽃은 붉은 빛을 띠는 노랑 색으로 한 개체 내에서 꽃이 매일 피고 지면서 개화기가 7월부터 8월까지 지속된다. 꽃대 1개당 폭 10~13cm의 꽃이 6~8개씩 모여서 달리며 매일 한 두개씩 핀다. 뿌리는 방

추형이며 땅속줄기가 있다.

원추리류는 관상용으로는 화단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 절화용으로도 일부 쓰이고 있다. 어린 싹은 나물로 이용되는데 ‘넘나물’이라 하여 전통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뿌리는 利尿, 止血, 消炎 등의 효과가 있어 약용으로 쓰인다. 蜜源植物로도 이용되고 있다

2. 번식 및 재배

번식은 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종자번식이 잘 되는 종은 8~9월에 종자가 익으면 따서 바로 파종하거나 서늘한 곳에 두었다가 봄에 파종한다. 다년초이기 때문에 파종후 2년이 지나야 꽃이 피기 시작한다.

각시원추리는 자생 원추리 중 꽃이 크고 관상

(표 1) 지베렐린 처리에 따른 각시원추리의 발아특성

지베렐린 농도(mg/l)	발아율(%)	발아소요일수(일)	발아속도계수
대조구	35	12.6	8.0
5	78	18.3	5.5
10	92	17.2	5.8
25	83	17.5	5.7
50	74	17.9	5.6
100	60	18.7	5.3

(표 2) 각시원추리 발아온도별 발아특성

발아온도(℃)	발아율(%)	평균발아일(일)	발아속도계수
10	53	19.7	5.0
20	85	18.4	5.4
25	89	18.0	5.7
30	81	18.7	5.3

가치가 높아 재배가 유망시되는 종이다. 각시원추리는 5~6월에 꽃이 피어 종자를 성숙시키는데, 종자는 1꼬투리에 3~4개로 완전히 익으면 흑색으로 된다. 종자는 성숙 후 알지만 휴면성이 있어서 그냥 파종하면 발아율이 현저히 낮아지지만 지베렐린을 처리하여 파종하면 발아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표 1). 즉 지베렐린을 10mg/l 농도로 처리하면 발아율이 92%로 가장 높으며 발아소요일수는 평균 17.2일 정도이다.

각시원추리 종자의 적정 발아온도는 표 2에서와 같이 25℃이다. 즉 25℃에서 가장 높은 89%의 발아율을 보였으며 발아소요일수는 평균 18일 정도 걸린다. 하지만 발아율은 10℃에서는 53%,

30℃에서도 81%를 보여 각시원추리는 발아온도 범위가 비교적 넓은 종으로 생각된다.

한편 종자의 발아율은 채종 후 경과 년수에 따라 현저하게 다르다. 즉 표 3과 같이 채종 당년에 파종하는 것은 저장온도에 관계없이 발아율이 높으나 1년 이상 경과한 종자는 발아율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아예 발아되지 않는다(상온에 둔 경우). 따라서 각시원추리 종자는 단명종자이며, 균일한 실험묘를 얻기 위해서는 당년에 채종한 종자를 저온에 저장하면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왕원추리는 3배체 식물로써 종자를 맺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큰원추리 역시 종자를 잘

(표 3) 종자 저장기간과 저장온도에 따른 발아특성

종자저장기간	저장온도	발아율(%)	발아소요일수	발아속도계수
채종후 30일내	상온	35	12.6	8.0
	4℃	77	7.3	14.8
채종후 1년	상온	28	11.1	9.0
	4℃	48	7.0	14.2
채종후 2년	상온	0	-	-
	4℃	15	16.8	5.8

(표 4) 관부크기와 각시원추리 개화율과의 관계

관부크기(cm)	0.5	1.0	1.5	2.0	2.5
개화율(%)	19	52	81	100	100

맺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등황색이거나 꽃이 대형인데다 절화수명도 길어 화단용은 물론 절화 용으로도 유망시 되는 종이다. 따라서 이들 종들은 조직배양에 의한 대량증식이 필요하다.

원추리는 재배환경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잘 자라는 편이다. 증식을 위한 포기나누기는 5년 정도 간격으로 3-4월경(따뜻한 지방에서는 가을)에 하는데 포기를 나눌 때는 한 포기당 눈이 2~3개 이상이 붙도록 한다. 꽃눈은 2월 하순부터 3월 상순경에 분화되는데 풍성한 개화를 위해서는 식물체 크기가 매우 중요하다. 즉 각시원추리의 경우 관부크기와 개화율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표 4). 관부크기가 2.0cm 이상은 되어야 100% 개화되며 1.0cm 이하에서는 52%로 개화율이 극히 저조하다.

왕원추리는 초장이 1m내외로 너무 커 화분용으로 재배하려면 초장억제가 필요하다. 화경장단축을 위해 생장억제제를 처리한 결과, 최고 65%까지 단축되었다. 생장조정제 종류별로는 CCC, 에세폰, 안시미돌 순으로 억제효과가 컸고, 농도가 높을수록 생육억제 효과는 강하게 나타났다. 왕원추리의 영양번식은 포기나누기로 하는데 봄이나 가을에 땅속줄기를 몇 개로 나누어 심는다. 3~4월에 포기나누기를 해 주면 그 해 여름에 개화하는데 당년에는 꽃이 다소 빈약하다. 9~10월에 하면 포기가 충분히 자라 이듬해 여름에 잘 개화한다. 포기나누기는 3~4년에 한 번씩 한다.

일반 가정에서 화단용으로 관상하려면 야생화 전문점에서 뿌리가 충실한 묘를 몇 포기 구입하고, 햇볕이 반나절 이상 들고 물빠짐이 좋은 곳을 택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심고 새 뿌리가 완전히 내릴 때까지 물 관리에 유의하고, 특히 개화기에 건조하지 않도록 물을 자주 주어야 한다. 묘를 심을 자리는 정식 전에 10a당 완숙퇴비 3톤, 닭똥 200kg과 화학비료 20kg 정도를 넣고 잘 갈아 엮는다. 정식은 1m 이랑에 50cm 간격으로 2줄로 심는다. 병해는 거의 없으나 충해는 많으며 특히 진딧물 발생이 심하므로 이에 대한 방제대책이 필요하다. 

